

#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권할까

## 곽정란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장

연일 쏟아져나오는 출판물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골라줄까, 학부모나 교사들의 주된 관심사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아이들에게 책을 골라줄 때 우선 개인적으로는 아이의 독서력이나 독서취향을 고려해서 책을 골라주어야 하지만 본질적으로 좋은 동화가 가져야 할 기준을 염두에 두고 동화를 골라야 할 것이다.

우선 어린이가 읽는 책이라면 당연히 어린이들 교육의 한 차원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가 어린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가가 읽으면서 느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작가는 인생의 선배로서, 또 교사로 부모로 아이들에게 그가 겪은 인생의 이야기에서부터 그가 본 이 세계를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창(窓)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좋은 동화란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바로 새로운 지식을 얻기도 하지만 그 동화가 주는 교훈이 두고두고 아이의 삶에 젖어들어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등불과도 같아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일제하에서의 우리의 어린이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독립심을 일깨워주는 교육이었다. 어린이들에게 민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의 글,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같이 나라잃은 상황에서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긴박감은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중있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다.

수입개방으로 모든 면의 문물이 붓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상황에서 겪는 혼란과 산업사회화되면서 일어나는 이농현상,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의 격차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통일 문제 등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이 땅에서 자라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이런 우리의 역사, 현실을 바로 알 수 있는 동화를 읽고 자라나야 한다. 그런 힘이 모아졌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올바른 사회관, 역사관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셋째,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었지만 그 대신 많은 것을 앗아 갔다. 덕분에 아이들은 더불어 살기를 배우기보다는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나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짓눌리고,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해도 우리가 가야 할, 어린이들이 읽어야 할 동화가 담아야 할 것은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이다. 더불어 사는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은 아니다. 생태계와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천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영원한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넷째, 문장이 명쾌하고 간결해서 어린이들이 읽기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일찍이 이오덕님은 그의 평론집 「시정신 유희정신」에서 아동문학을 하는 작가들이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 즉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작가일수록 동화의 문장에서 미문이나 요란한 장식 문체를 남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성인 문학작품을 쓰는 작가들이 동화를 쓰면서 그러한 열등의식과는 다르게 동화에 대한, 그리고 아동의 세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어린이들이 읽기에 감각적이고 자극적이며 현란한 미사여구가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한 배려없이 그대로 들려진다면 아이들이 책을 읽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바른 우리말을 배워야 할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염려스럽다.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어린이들의 삶을 올바르게 보려는 작가의식을 바탕으로 해 좋은 동화가 많이 씌어지고, 또 이런 동화를 선별해내어 어린이들에게 권장하는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아이들은 꿈을 갖고 바르게 자라날 것이다.

### 특집 2 이동도서 출판의 '빈터'는 과연 없는가

주제별 연령별 세분화로 영역 확대됐으나 여전히 미흡

### 4 어린이용 전자책 개발, 어디까지 와 있나

몇몇 대형사서 신제품 잇달아 출시...외국과의 경쟁부담도

### 6 쓰는 작가는 많은데 읽히는 작품이 드물다

창작동화 위기론에 탈출구는 없는가

### 서평 8 김영민 「현상학과 시간」 — 이상백

리케르 「악의 상징」 — 김영환

### 9 한규철 「발해의 대외관계사」 — 송기호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 고대승

### 10 김석준 「국가변동론」 — 강 민

김영명 「일본의 빈곤」 — 최은봉

### 11 르산 외 「아인슈타인의 공간...」 — 장희익

12 미술비평연구회 「문화변동과 미술비평...」 — 최태만

이형준 「흰 옷」 — 김치수

### 확대서평 13 한국 '마르크스학' 정초 다진 기념비적 저술 — 김세균

정문길 지음 「마르크스의 사상형성과 초기저작」

### 출판시론 14 글자꼴 저작권 불인정 판결에 할말 많다 — 박성호

장기간의 창의력 노력 당연히 보상받아야

### 세미나 16 "소급보호 인정여부 시급히 정리돼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및 배른협약과 한국출판계의 대응

### 화제의 책 17 황종건·김녕만의 「광주, 그날」

이 책 그 사람 18 「떠돌이 시인의 나라」 낸 이가을씨

「개구리 탐험대의 가출소동」 낸 조기원씨

19 「나야, 문치 도깨비야」 낸 서화숙씨

「꽃요정 + 4」 낸 나애경씨

### 해외기고 20 한국의 학술출판 현황과 전망 — 윤충남

출판산업의 전반적 성장추세 못따라가

### 세계의 책 22 전쟁에 과학을 동원한 허버드대 총장 — 배병삼

미 루즈벨트대통령의 과학자문위원이었던 제임스 코넨전기

### 컬러화보 24 화려하고 다양한 어린이책 축제한마당 — 김두환

伊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시회 참관기

26 독자서평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안내